

# 교통약자 편익증진 '앞장'

익산시, 장애인콜택시·행복콜버스·500원 행복콜택시 등 운행... 주민 발 역할 특출

익산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기반을 확대하고 도농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용응답형 정책까지 다각적 편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확대와 '아이사랑콜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행복콜버스(택시), '통학택시(버스)' 등 농촌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에 장애인콜택시 5대를 추가 도입했으며 연말까지 5대를 더 증차해 총40대의 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임차택시 6대를 추가 운행하며 해마다 늘어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효율성이 악화되는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올해 40대의 장애인콜택시로



중증장애인 법정대수인 1대당 150명을 확보하고 임차택시 6대를 지속 운영해 실제 1대당 128명으로 이동권 증진 효과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현재 지역의 중증장애인 수는 총 5,866명이며 상반기 동안 1,860명이 총 3만4,888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했다. 이는 이용자당 1달에 평균 3번 택시를 이용한 셈이다.

임산부와 영유아, 농촌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통지원책도 보육권과 교육

권까지 보장해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아이사랑콜택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게 카시트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전용 콜택시 서비스다. 현재 2대가 운영 중이며 올해 6월 말까지 192명이 1,465건을 이용했다.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읍면소재 중고등학교의 '통학전용 택시(버스)' 지원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에서 집이 2km 이상이면서 버스 노선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집과 버스정류장의 거리가 1km 이상인 학생들이 대상이다. 총 11대의 차량이 8개 학교 23개 노선을 운행, 학생들의 교통편만 아니라 교육권 확보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12일 오전 공웨딩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익산시의회-원광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12일 오전 공웨딩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종오 의장, 한동연 부의장 등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황진수 부총장을 비롯한 처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허브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종오 의장은 "글로벌대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과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원광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하며, "익산시의회도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인재로 장성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제2회 추경예산 1조 8238억원 편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51억원 증액 편성 의회 제출

익산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51억원(8.6%)이 늘어난 1조 8,238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1조 5,531억원 대비 1,319억원(8.5%) 증가한 1조 6,8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256억원 대비 132억원(10.5%) 증가한 1,388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대내외 경기 불황 속에서 국·도비 예산 반영을 포함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예산만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왕궁 협업축사 매입 90억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50억, 소산마을 소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6억원, 유천배수펌프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 3억원 등을 편성했다.

△북지 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8억원,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7억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경관보전지정지불제 27억원, 농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30억원,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개최 5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이로움 익산사랑상품권 161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원, 서동시장 문화공간 조성사업 4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합죽지역 도시재생사업 28억원, 마을인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4억원, 서수평장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건설 20억원,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최 10억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7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정 역점사업 추진에 집중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의 사임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통해 익산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아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는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선 의원) 등 8건이다.

최종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전반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개선점과 향후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익산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현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도심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을 촉구했으며, 김중영 의원 익산시 정기간사 시 인사 예고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조남석 의원은 경로당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지적하며, 경로당 신축 지원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전용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 내달 2일까지 추천

군산시는 제61회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한 시민을 선발해 '군산시 시민의 장'을 수여하고자 수상후보자 추천을 접수 받는다.

시상부문은 총 9개로 문화예술체육, 애항봉사, 산업장, 노동장, 효열장,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림수산업이며, 수상지역은 군산시 거주자나 출신자로 해당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선발하게 된다.

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기업체장, 사회단체장, 대학교 총장 등의 추천 및 시민 연서(30명)를 받아 추천서 및 공적조서,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해 오는 8월 2일까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시정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시 홈페이지 '도시공고'란에서 다운받거나, 행정지원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수상후보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절차와 현지조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한 후 오는 9월 20일 개최 예정인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시민의 장은 지역사회와 시민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 또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군산시민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사람에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상인만큼 시민이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공로자를 찾아 시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